

재생에너지

그린산업/ESG 한병화
bhh1026@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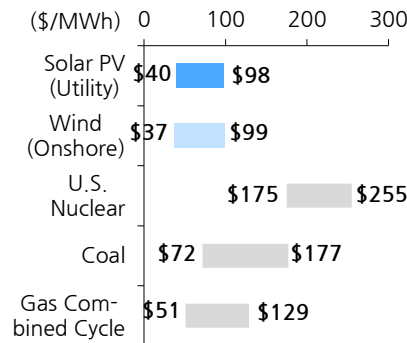
미국, 발전원가 상승 속 재생에너지 경쟁력 부각

- “ **생애주기 발전원가(LCOE) 2년 연속 상승**
보조금 제외 기준 미국의 발전원별 원가(중간 값 기준)가 2년 연속 상승세 지속. 2026년 버전 가스 피커는 전년 대비 5%, 복합 가스발전은 15%, 육상풍력은 11%, 태양광은 19% 상승한 것으로 추산. AI 데이터센터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모든 발전원의 증설 모멘텀이 확산되고 있으나. 주요 기저재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원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
- “ **육상 풍력, 태양광의 원가 경쟁력 더 높아져**
복합 가스발전과 육상풍력의 LCOE 격차는 2025년 17달러/MWh에서 2026년 22달러로 확대되었고, 태양광도 20달러에서 21달러로 커짐. 원가의 차이가 커진다는 의미는 복합 가스발전의 원가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 모든 발전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 상승을 겪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상대적인 우위는 지속되고 있다는 근거
- “ **재생에너지+BESS의 원가가 복합 가스발전과 유사한 영역으로 진입**
가스발전의 원가 상승과 BESS의 가격 하락으로 미국 주요 지역에서 LCOE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태양광+BESS의 LCOE는 61~156달러/MWh에서 보조금 포함 시 43~135달러로 낮아지고, 육상풍력+BESS도 49~140달러에서 보조금 포함 시 35~118달러로 하락함. 가스 터빈의 구매에 4~5년이 소요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확보에도 지역의 반대가 생기고 있는 상황
- “ **원가경쟁력이 점점 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것**
미국 발전 수요 증가의 압도적인 대상은 AI 데이터센터. 이들은 가장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발전원을 선호. 전통에너지원 중 가스 발전이 석탄이나 원전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된 이유.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BESS를 장착해 간헐성도 극복하고 원가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선호 순위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판단. 특히 과도한 투자 지출로 수요자들도 데이터센터의 수익성을 중시하게 되고, 중국의 가성비 높은 AI 상품들의 확산도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남비 현상은 중국 선거 이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데이터센터 신설은 향후 더 많은 반대에 직면할 것. 재생에너지+BESS가 데이터센터 발전의 중심이 되고, 가스 발전이 보조 발전원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판단.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가동 중인 가스 피커에 재생에너지와 BESS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업종투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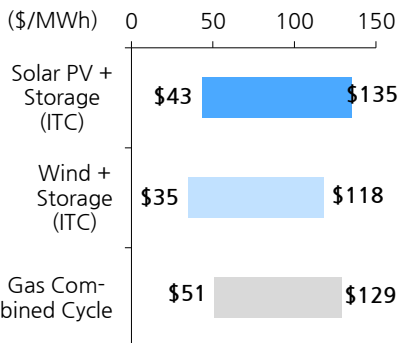
OVERWEIGHT

발전원별 LCOE 가격(보조금 제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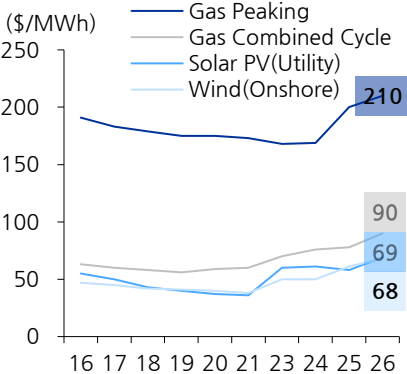
자료: Lazard, 유진투자증권

재생에너지+BESS LCOE 가격(보조금 포함 기준)



자료: Lazard, 유진투자증권

발전원별 LCOE(중간 값) 추이



자료: Lazard,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6.30 기준)